

광주·전남 상장사 '외화내빈'

작년 매출액 늘었으나 순익은 줄어 국내 상장사 수익성 개선과 대조적

12월 결산법인 분석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주요 상장사들은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반면 순이익은 대폭 줄어드는 등 '외화내빈' 현상을 보였다.

특히 금호타이어의 경우 수출증가로 매출이 10% 이상 늘었는데 대내외 악재로 인해 적자로 돌아서는 등 실속없는 장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증권신문가매소에 따르면 광주·전남 주요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실적은 분석한 결과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주) 등 지역 주축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순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상장사 가운데 매출규모가 가장 큰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2조29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2006년에 비해 11.9%(2천155억원)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자비용 및 외환관련 손실 증가, 해외 신규증상에 따른 지분법 평가 손실 등으로 인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2천598%나 급감하면서 242억원의 적자를 냈다.

금호산업(주)도 지난해 1조9천173억원의 매출을 올려 1년 전보다 17.7%(2천886억원) 증가했다. 반면 순

이익은 414억원으로, 1년새 79.7%(1천528억원)나 줄었다.

이처럼 지역 내 주축 상장사들의 실적이 '외화내빈' 현상을 보인 것은 수출확대 및 국내 경기 회복세 등이 맞물리면서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재산상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금호산업(주)과 금호타이어의 경우 지분법 손실이 실적에 반영된 것도 순익 감소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분법 손실이란 자회사 등에 투자한 지분이 있을 경우 해당 회사의 손실 가운데 보유주분이 손실을 자사의 손실로 반영한 것을 말한다.

반면 지역 상장사 가운데 한국화인 케미칼(주)과 (주)엘앤에스는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한국화인케미칼(주)은 지난해 2천767억원의 매출을 올려 1년 전보다 33.1%(688억원)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405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1년새 525.7%(340억원)의 가파른 신장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주)엘앤에스는 2006년에 94억원의 적자를 봤으나 지난해에는 22억원의 순이익을 거둬 흑자로 전환했으며, (주)셀렌도 순이익이 132억원에 달하면서 1년새 481.9%나 늘었다.

한편 지난해에는 국내 상장사들의 수익성 개선 추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국내 주요 12월 결산법인(374개사)의 매출액은 총 509조635억원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 또 이들 기업의 순이익은 29조8천850억원으로, 전년보다 25.3% 늘었다.

순이익이 확대된 상장사는 167개사로, 전체의 44.7%를 차지했으며, 흑자전환 상장사도 42개사로 적자전환 상장사(26개)를 크게 웃돌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금호타이어, 베트남 생산공장 준공

31만㎡ ... 2억 달러 투자 연산 315만개 생산능력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 빈증성에 세워진 금호타이어 래디얼 타이어 생산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대표 오세철)가 타이어 업계 최초로 베트남에 래디얼 타이어 생산공장을 준공하는 등 글로벌 생산체제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5일 베트남 빈증성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웅원 신홍 수석 부수상 등 2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베트남 공장은 베트남 제 1의 산업도시 호치민시로부터 1시간 거리에 있는 빈증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31만5천㎡ 규모의 부지에 총 2억 달러를 투자해 준공됐다.

금호타이어는 연산 315만 개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베트남 공장의 생산능력을 향후 시장상황을 검토해 1천300만개까지 생산량을 늘려나가는 동시에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을 베트남은 물론, 관세장벽이 없는 아세안 국가와 미국, 유럽 등지에도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6월, 베트

남 공장 인근에 천연고무 가공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원재료 자체 조달을 통해 원재료 급등의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돼 타이어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베트남 공장은 금호타이어의 네번째 해외 생산기지로 그동안 중국 중심의 해외 생산체제에서 벗어나 글로벌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남중·텐진·창춘 등 중국내 3개 지역에서 해외 생산기지를 가동 중에 있으며 지

난해 이 지역에서 2천40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했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이번 베트남 공장 준공으로 올해 해외 생산량(3천400만개)이 국내 생산량(3천100만개)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상반기 예정된 미국 조지아주 공장 기공(2009년 하반기 완공 예정)과 올 하반기 예정된 중국 남경 TBR 공장준공 등 해외생산 능력이 보다 확대돼 글로벌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전남지역 소상공인 광주은행 특별대출

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이 전남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별대출을 시행한다.

광주은행은 5일 전남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특별보증대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금리를 우대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보증료를 할증 없이 차등 우대한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원으로, 대출 기간은 5년 이내로 운용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삼겹살 인기 최근 황사로 인해 삼겹살 판매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5일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식품코너에서 한 여성고객이 삼겹살을 구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중소사랑 청소년 글짓기' 중기청, 초·중·고생 대상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 5회 '중소기업사랑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로, 일상 속에서 느낀 중소기업 사랑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을 200자 원고지 15매에 작성해 다음달 18일까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축산 농가 사료구매자금 1조 지원 원자재값 급등 부담 덜어 ... 유가 점검반 가동도

정부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가의 사료값 부담을 덜기 위해 양돈·한우 농가에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정유사들의 우월적 지위남용이나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유가점검반을 긴급 가동, 본격 물가 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농가의 사료값 부담을 덜기 위해 양돈·한우 농가에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2~24%인 사료 외상 구매에 따른 이자 부담이 연 3%, 상환기간 1년 등의 조건으로 변경돼 농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또 유가 급등세가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중심으로 '유가점검반'을 구성, 가동을 개시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과도한 보상·규정에도 없는 환불 요구 등 소비자들 '떼쓰기' ... 기업들은 '속병'

소비자들의 주권의식이 높아지고 각종 소비자보호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나 이에 편승한 소비자들의 부당한 요구로 피해를 겪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기업의 소비자관련 예외실태와 개선과제' 조사결과 고객들의 부당한 요구가 '빈번히'(50.1%) 또는 '가끔'(37.1%)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87.1%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실시한 조사 때 고객들의 부당한 요구를 경험한 기업의 비율이 61.1%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다.

고객들이 제기하는 부당한 요구의 유형은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보상요구(53.7%) ▲규정에 없는

환불·교체요구(32.4%) ▲보증기간 지난 후의 무상수리요구(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악성 클레임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보인 행태(복수응답)로는 ▲인터넷·인론유포 위협(68.9%) ▲폭언(46.8%) ▲고소·고발위협(21.8%) 등이 지적됐다.

또 '인터넷의 악성비방이나 사실과 다른 인본보도로 인해 기업이미지 훼손과 판매감소 등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는 기업이 54.1%, '고객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적이 있다'는 기업이 75.8%에 각각 달했다.

기업들이 이처럼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이유는 ▲기업이미지 훼손 예방(87.7%) ▲업무방해를 견디기 어려움(8.2%) ▲고소·고발에 휘말리기 싫어서(1.4%)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바탕 화면서 바로 बैं킹 농협 '뱅크젯 서비스'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개인용 PC의 바탕화면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뱅크젯' 서비스를 5일부터 제공한다.

'뱅크젯'은 बैं크(Bank)와 위젯(Widget)의 합성어로 PC(바탕화면)에 아이콘 형태의 बैं킹위젯을 설치해 별도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개인화 बैं킹 서비스다. 고객이 직접 필요한 메뉴만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신속한 금융거래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농협은 금융기관 최초 도입을 기념해 5일부터 4월4일까지 한달간 बैं킹젯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최신형 MP3 플레이어 등 경품들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오늘이 국내 최대 민방 여행시

부산 및 강원지역에 9시~15시 10시~18시

오늘의 여행시 장사기념행사

영어교사 양성과정 입학생모집

영어교사 23000명 내년부터 채용!

TESOL

선유철 대학교 TESOL 대학사 | 세운 크리스찬 대학교 TESOL 대학사 | 아메리칸 리버리대학교 TESOL 대학사

TESOL 자격증과 학위증서 同時 취득!

www.tesolamerica.com | www.tesol.kr | call: 062-222-6253